

身土不二의 興國農産 土種 홍화씨
합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지리 합양산 재배의 적지
● 합양산 100년간의 재배를 통한
● 서울본부
● 영남은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 전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바위속 부처님 나투시려면...”

신문박의 **석공예 명장 권오달씨**

“정성 쏟으면 돌은 부처님이 되고
불국토 염원하는 중생에 미소로 화답”

석불 석탑 조성자는 탐욕 다 버려야
40년간 돌과 함께 산 '제2의 아사달'



이유도 없었는데 이상한 일이었다.

“정말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 구요. 모든 것을 버리고 결단을 걸어야 하고 전국의 부처님들을 불러 만행을 다녔습니다. 한 3년을 그렇게 다니자 소식이 오더군요. 젊은 나이에 재주에 비해 오만한 마음이 많았던 나의 작품의 결미는 사자상같이 화려할 지 모르나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심오한 맛이 없다는 것을 그는 본격적으로 불교교리를 공부하며 신심을 키우고 전국의 석불 석탑을 연구했다. 조각기술도 숙련만 된다고 하는 아니었다. 변화를 주려면 상당한 진공과 고뇌속에 한결같은 태도가 됐다.”

“4각탑은 사상제, 6각탑은 여섯가지 보살형인 육바리밀, 8각탑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키고 실천해야 할 팔정도를 뜻합니다.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을 예술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낼까가 늘 화두입니다.” 그는 82년부터 자신의

작업을 꼼꼼히 일기로 남기고 있다. 자신이 오랜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기법과 재현방법 등을 후배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어한다. 그래서 후배석공예를 위해 8백여장의 설계도면을 그리고 석공기법과 재현방법, 시공한 것을 책으로 펴내 계획도 가지고 있다.

“불상을 조성하는 사람은 죄도 짓지 말고 업보도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이 재물에 대한 탐욕때문에 짓는 업보이지요. 부처님이 성불하실 때 필요한 것은 업보이고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이렇게 불타듯 태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버렸지 않습니까. 왕위도 버리고 육식도 버리고 명예도 부도 버리고... 모두가 버림으로써 성불한 것입니다. 석불 조성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떼내 버림으로써 부처님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글=김원우 기자(w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뚝 뚝...”
커다란 돌덩이가 한 점 한 점 정으로 쪼아 지자 서서히 부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 처음에는 그냥 둥그스런 산(巖)으로, 차차 눈 코 입과 손이 생기고 마침내 눈동자가 빛을 얻고 입가에는 미소가 완만하다. 누구의 말대로, 석불은 정으로 쪼아 모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부처님이 바위속에 숨어있는 것을 불모(佛母)의 정성과 가여만큼 그 모습이 밖으로 나투시는 것은 아닐까.

38년간 8백여 작품을 만들어 전통석조예술의 한우물을 파온 권오달씨(57세)에게 돌은 풀이 아니다. 차가운 광물체이지만 그에게는 돌속에 들어있는 따뜻한 숨결이 느껴진다. 그 숨결은 처음엔 울림과 말라 미미하지만 차츰 이루어지며 세심하게 정성을 쏟다보면 점차 살아나 그가 정을 흘 때마다 밖자에 맞춰 화답하는 것을 느낀다.

“돌 하나가 4천년을 간다고 합니다. 거의 영구적이라 할 수 있지요. 하나의 작품이 우리나라 전체 역사만큼이나 오래 간다고 할 때 어떻게 함부로 아무렇게나 만들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불 보살님일 경우 정말 온 영혼을 바칠 정도로 신심과 정성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40년간 돌을 쪼고 살아온 그에게 96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대한민국 명장(名匠)’을 수여했다. 그것에도 누구보다 깊은 신심과 열정을 가지고 수순로운 작품을 만드는 그를 두고 후원에서 헌년전 백제 최고의 장인이었던 아사달에 비유해 ‘제2의 아사달’로 부르고 있었기에 ‘명장’ 수여를 당연히 받아들

이는 분위기였지만 그는 오히려 더 큰 사랑감을 느끼는 터였다.
그는 30대초반부터 30년 가까운 세월을 오로지 전북 익산에서 살고 있다. 익산은 한민전 신라석조예술을 꽃피운 아사달의 흔이 살아있는 곳이다. 또 미륵사지석탑, 왕궁리석탑, 연등리석탑 등 국보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거기에 다 미륵산 줄기에는 어느 곳을 헤쳐도 희고 미려한 전국제일의 화강암이 풍부하니 자연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석조 명장들이 있게 하는 천혜의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곳이다.

권오달씨는 19세 나이에 이종현 장인(匠人) 아래에서 돌일을 시작했다. 3년간의 도제생활 동안 일을 가르쳐주고 밥을 먹여주니 그저 고마워 다른 생각없이 열심히 배웠다. 살아 탈 정도는 별다른 데 없어도 아픈 소리조차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참고 배워야 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러한 혹독한 시련이야말로 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기초가 되었음은 물론 인내를 다지는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3년후 기량을 인정받게된 권씨는 정 20가학과 부속품을 받고 독립하게 되자 돌을 찾아 전북 익산으로 내려왔다. 시간이 가면서 권씨의 남다른 소질은 점차 소문이 나 본격적으로 석공예의 길로 들어섰다. 어느정도 연륜도 쌓이면서 주문이 밀리고 찾아오는 사람이 늘면서 그에게 마진이 찾아왔다. 그러나 15년째 되던 해 어느순간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딱히

취재수첩 “전통 석공예의 가치 재평가해야”

돌이 많은 우리나라는 유난히 석공예가 발달했다. 전국에 천여기가 넘는 석탑과 석굴암 등 많은 석불과 부도 등도 섬세한 조각을 보인 그 빼어난 솜씨를 알 수 있다. 통일신라를 정점으로 고려시대까지 석조예술은 명맥을 유지해 오지만 조선시대 억불정책으로 인해 예술적으로 평가를 받을 만한 석조예술품은 줄어들고 일제시대를 거치며 석공예의 맥은 거의 끊어지게 된다.
1967년 이후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값싼 불교관련 석공예품을 많이 주문해 작업해 가면서 석공예가 활기를 띠는 듯 했으나 우리나라 석공예가 일본식 불상

에 있어 유행처럼 그렇게 제작하다보니 국내불상들도 일본화일 위함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일부 그러한 위함을 감지한 권오달씨와 같은 석공(石匠)들이 전통을 이어가고자 단절된 우리 석문화 재현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석공들은 아직 제대로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석공예가 우리 전통문화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비추어 불교종립학교를 비롯 전국대학에 전통석공예 관련학과는 한군데도 없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또 석공예가 무형문화재지정에서 빠져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통문

화의 보존과 불교문화 발전차원에서 종단의 관심이 절실한 부분이다.
권오달씨 등은 석문화재 발굴작업시 금석문과 불상등의 경우는 돌의 성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석공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석문의 경우 탁본등을 통해 해석하다보면 글자가 변질됨으로 말이말야 오류가 나오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권오달씨는 “금석문의 경우 정으로 글을 새길때 표면에 충격이 1cm가량 내장돼 있는 만큼 이를 관측해야 한다”며 “문화재 발굴에는 특히 학문적인 것과 기능이 합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에 있는 자신의 석재공장에서 조각에 몰두하고 있는 권오달씨.

마애불을 찾아서 삼막사 마애삼존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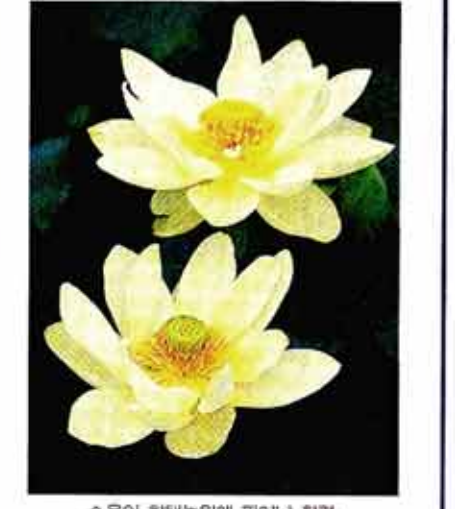
눈·입·볼 등 울동감 있게 묘사
철성신앙과 결합된 조선후기작

삼성산 삼막사 철성각에 있는 이 삼존불은 자연암벽에 감실을 만들고 거기에 부조한 철성관삼존불로서 석굴사원 유구로 전해오는 중요한 자료이다. 유존인 철성공여래의 머리는 소발에 반달형 계주가 보이며 얼굴은 사각형이지만 눈과 입 볼 등을 울동감있게 묘사, 미소짓게 함으로써 중후하고 자

비스러운 인상을 풍기게 한다. 목은 밍글이 더욱 어깨가 움츠러보이고 신체는 두터운 불의에 파묻히고 선각으로 묘사하여 양감을 느낄 수 없다.
좌우 협시보살인 일광·월광 보살은 각각 연화대위에 합장한 모습인데 머리에는 소박한 삼산관을 쓰고 있으며 얼굴은 본존과 비슷하지만 환한 미소 때문에 활력이 넘쳐보인다. 이 삼존불은 얼굴이나 상체의 활발한 부조로 생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는 삼막사 마애삼존불.



용인 한택농원에 피어난 황련.



연꽃의 연방.

희귀한 황련꽃 '보세오'

더러운 진흙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처영상정(處英相淨)'으로 인해 불교에서는 '보리심' '정정무구한 불심'을 상징하는 연꽃. 연꽃이 곳곳에서 만개하고 있다. 연꽃은 7월부터 8월까지 피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홍련(紅蓮)과 백련(白蓮)이고 황련(黃蓮)은 희귀하다. 청련(靑蓮)은 인도에 있다고 한다.
20여년간 연꽃을 주로 찍어온 상양산(상촌봉인사)이 7월말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옥산리 한택농원 연지에서 총처럼 보기힘든 황련의 만개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우리나라에는 정복무안, 강진 백련사, 전주 덕진공원, 천안 광덕면, 아산 인취사 등 전국 20여곳에서 연꽃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윽한 향기를 맡을 수 있다.
사진=석선암(한국불교신문 사진부장)

신비의 달마도를 행운의 순금 (99.9%)카드에..



▲ 말연 달마도 ▲ 뒷면 반아심경
달마는 釋尊 대외하는 인물로 깨달음을 상징하며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손꼽힌다. 또한 달마도는 TV 방영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신비스러운 기(氣)를 방출하여 수백을 치유하는 등 건강과 함께 부와 명예를 불러 주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에 착안하여 (주)한국 지엔에서 신비의 기를 지닌 '달마도' 등을 행운의 '순금카드' 뒤에 새겨 상용화(실용신안등록 No.02066) 했다. 천만불과 특별 보시 보증금으로 신비로 큰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순금카드의 앞면은 달마도의 대가 매한 율동수 선영의 원본 작품을 카드용 크기 (대형 5cm×7.5cm, 소형 3cm×5cm)에 새기고 뒷면에는 반아심경을 새겨 비닐압착포팅함으로써 떨어지거나 구겨짐없이 지갑에 소지하기 쉽다.
사찰이나 불자님들의 봉사 보시용으로 다량 주문시에는 가격 할인은 물론 앞면엔 원하는 사진, 그림, 글씨, 부처, 이등등 어떠한 문안이나 색상도 크기에 관계없이 원본 그대로 제작 가능하다. 개인 소장용 및 선물용으로 최적이며 가격은 대형 30,000원, 소형 15,000원, 대소셋트 구비시 특별 보시 가격으로 20% 할인된 28,000원에 판매한다.

부처님의 말씀과 신비의 달마도를 품안에 가까이...
철학전문 김수후 전국 어느곳이나 5일내 우편배달 가능하며 최고의 진신 달마도를 고급 프구역자(27cm×32cm)화한 액자 용도 한정 판매한다.
* 또한 예쁜 율동수선영의 달마도 원본도 판매합니다.
순금판 열쇠고리 순금판 상반신 달마도 열쇠고리
1개 : 1만원, 3개(셋) : 2만원에 판매
*유사품과는 다릅니다. (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제조판매처: 한국 지엔씨 (24시간 공영일 접수가능)
◎ 구입문의 본사: 02)922-4804~5 * 영입점 모집